

새천년

# emerge

① 중앙일보

새 천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 한형조  
—自然, 그 혼돈의 神學을 위한 序說

## 기획 · 제3의 길 - 다시 본다

신중성 · The Economist · Daniel Bensaid  
Pierre Bourdieu · Elliott Abrams

한국 개혁정치에 대한 신체계론적 조명 · 박효중  
복잡성 이론이란 무엇인가 · John Casti

평론 이정우 · 장석만 · 강한섭 · 홍해결  
에세이 C. Fred Bergsten · Joseph S. Nye, Jr.  
井上達夫 · 保阪正康  
Economist Survey Innovation in Industry

서평 조우석 · 남경태 · 김기협 · 공병호 외  
詩 성찬경 · 장석남  
新作短篇 흰 얼룩말 · 이윤기

박노해 시인에게 간곡히 권한다 · 유시민  
우리에게 박노해는 누구인가 · 김정란

## 창간호

1999. 9

millennium-emerge, monthly

창간 10주년 기념호 · 1999년 9월 15일 등록 라-08282/1999년 9월 15일 발행 부권 1호/발행처 ① 중앙일보

### BOOK REVIEW

## 한계를 넘어선 이야기

Daniel Pipes

〈기드온의 스파이들 : 모사드의 숨겨진 이야기〉  
Gideon's Spies : The Secret History of the Mossad  
Gordon Thomas 지음, St. Martin's, 1999

이 책의 저자는 더블린에 사는 웨일스 출신 저널리스트 Gordon Thomas다. 그는 이 책에서,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가 모니카 르윈스키라는 이름을 집하기 훨씬 전부터 이스라엘 비밀첩보국은 클린턴과 이 젊은 여성 인턴직원 사이에서 오간 은밀한 대화내용이 녹음된 약 30시간 분량의 테이프들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Thomas는 또한 예루살렘측이 나중에 공갈협박이 필요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또 백악관에 심어 둔 'Mega'라는 암호명의 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테이프들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이 처음으로 표면화된 것은 몇 달 전의 일인데,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들이어서 백악관은 '년센스'라고 무시해 버렸다(한 정부 대변

인은 〈기드온의 스파이들〉을 다음과 같이 비웃었다. "솔직히 서점 주인들은 이 책을 소설 판매대 쪽에다 진열해야 할 겁니다."). 전 이스라엘 총리ネタ냐후의 대변인인 David Barillan 또한 Thomas의 주장들이 "도에 지나치고, 그야말로 경멸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하며, "어떻게 그런 헛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미국 정부관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그들은 지금까지 너무 자주 거짓말을 해 왔다. 이스라엘도 스파이 작전의 존재를 인정할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스타 검사의 보고서에는 대통령이 "어떤 외국 대사관이(어느 나라 대사관이란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전화내용을 도청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는 르윈스키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기드온의 스파이들〉은 좀더 세심히 관찰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하물며 이스라엘이 못된 장난을 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만 하면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럴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이야기 중에는 놀라운 사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Thomas는 이스라엘의 비밀첩보국 모사드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운전사에게 한계를 넘어서는 압력을 가해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갔고, 출판업계의 재벌인 Robert Maxwell을 살해했으며,

1983년 레바논에서 죽은 미 혁명대원 241명의 운명이 헤즈볼라(Hizbollah)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CIA 요원이었던 William Buckley를 죽게 해 PLO에 그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Thomas의 '숨겨진 이야기'는 이외에도 1991년 고르바초프에 대한 소련 강경파의 폭동(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지만)을 모사드가 배후에서 지원했다고 전한다.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Thomas는 모사드가 1981년에 인슬로(Inslow)라는 이름의 한 미국 기업으로부터 구입했다고 추정되는 놀라운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미스(Promis)'에 대한 이야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Thomas에 따르면 이것은 '기존의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했던 방식을 통해 사람들의 움직임을 전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1987년부터 1992년까지 계속된 인티파다(Intifada) 전쟁 중에 이스라엘은 프로미스를 이용하여 '세계 전역에 퍼져 있는 PLO의 근거지 17군데의 컴퓨터들을 추적'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스라엘 첩보국은 아라파트가 어떤 가명과 위조여권을 사용하는가를 알아내서 그의 전화요금 청구서 및 그가 전화한 번호들을 추적했는데, 이 때문에 어디로 가건 아라파트는 이스라엘의 감시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프로미스가 테러리스트의 일거수일

1)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반란.



투족을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테러 작전이 '확실히 언제 어디서' 일어날 것인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프로미스의 가장 큰 이점은 모사드의 기술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분해·분석하여 소위 '陷穽誘引함정유인' 마이크로칩 등 몇 가지 기능을 덧붙인 다음 요르단이나 소련 등의 첩보국에 팔아넘겨서, 그들의 계획까지도 세세히 추적할 수 있었다는 점이라 하겠다.

이 밖에도 《기드온의 스파이들》에는 이와 같거나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이른바 비밀 테이프 녹음이라든가, 음모 분석가가 아니면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을 어떤 회사에서 제작되었다는 경이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에 근거한 이야기들. 물론 그것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증명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는 만약 실제로 이스라엘 첩보국의 능력이 Thomas가 추측하는 그대로라면 인터파다 전쟁은 도중에 중단되었을 것이며, 반유태 테러리즘 문제 또한 이미 오래 전에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었을 것이라는 정도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검증 불가능한 주장이 아닌, 이미 알려졌거나 확인될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도 Thomas를 신뢰하기는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충분히 설명될 것이다.

중동에 대한 설명에서 Thomas가 사용하는 언어는 오류의 극치를 보인다.

그는 아랍어를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sup>2)</sup> 오역까지 저지르고 있다.<sup>3)</sup> 또한 고유명사를 사용하는 데에서도 많은 실수가 보이는데, 예를 들면 레바논의 마론파 카톨릭 교도 Maronite Catholics를 Marionites로, 이란의 무기상인인 Ghorbanifar를 Thorbanifar로, 사담 후세인의 형제인 Sabwi를 Sabba'a로 각각 틀리게 표기하고 있다. 연도 표시도 문제이다. Thomas는 모사드의 탄생연도를 수십 년이나 틀리게 잡고 있으며, Richard Helms가 1957년(사실은 1966년이 옳다)에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에 올랐다고 말하는가 하면, 1967년의 전쟁을 잊어버렸는지 1973년에 일어난 욘 키푸르 Yom Kippur 전쟁을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일어난 '두 번째 전면전'이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Thomas의 이런 실수는 계속된다.

이 책은 일트당토않은 모순을 남발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위해 간첩활동을 벌인 미국인 Jonathan Pollard가 "미국 첩보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정보접근 허가권을 가졌다."고 말하고는 몇 페이지 넘어가지도 않아서 Pollard의 정보접근 허가권은 이스라엘측의 조종자가 요구한 서류를 손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한 곳에서는 1965년에 드골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지원을 중단했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곳에 가서는 같은 상황이 벌어

진 게 1968년이라고 기록한다.

무지의 혼적도 여기저기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Thomas는 '이슬람 수피교 Islamic Sufi의 분파 중 가장 오래된 사라미 Sarami 종파의 일원'에 대해 언급하는데, 수피교는 분파사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라미파는 가장 오래된 것이기는 커녕 존재하지도 않는다. 만약 그의 말대로라면 현재의 교황은 '독재자'이며, CIA의 직원이 '수십만 명'에 이른다는 것 등이 모두 사실이 된다. 예를 들어 '모사드의 우두머리가 모사드 측에서 한 명의 테러리스트를 제거할 때마다' 정보제공자들에게 '미국돈 1달러씩의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자신있게 주장하는데 이르면 우리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그게 보상이라니!

이 책 56쪽에서 Thomas는 1996년의 TWA 800 항공기 폭파 참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수천 개의 언론'이 이 비극적 사건에 중동의 테러단체가 연루되었다고 진단했는데, Thomas에 의하면 이런 생각은 그릇된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적의 정보망을 교란시키려는 이스라엘의 농간이라는 것이다. 그는 문제의 사건에 대한 수사책임자인 FBI 요원 James Kallstrom이 동료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한다. "텔아비브에 있는 놈들을 잡아낼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러고 싶은데, 놈들이 언론으로 흘러보낸 것들은 하나하나 죄다 검사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필자가 직접 이야기해 본 결과, Kallstrom은 이러한 이야기를 '완전한 넌센스'라고 말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절대로 없다고

한다는 점이다. 내가 그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사실 이스라엘측은 이 사건을 조사하는 데 '대단히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런 종류의 '완전한 넌센스'에 치중하지만 않는다면, 《기드온의 스파이들》은 비록 진부한 판박이 이야기이긴 해도 어쨌거나 모사드의 작전—1950년대 후반 Eli Cohen을 다마스쿠스(Damascus)로 발령한 것과 1976년 엔데베(Enebbe)에 억류되어 있던 인질들을 구출한 일 등을 포함—에 대한 훌륭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Thomas는 이 조직이 이룩한 진정한 위업 몇 가지—이를테면 1956년 스탈린 체제를 부정하는 흐루시초프의 비밀회합 연설문 원고를 보관한 것 등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책에서 믿을 만한 것이란 모두가 다 아는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반면 새로운 것일 경우 그것은 전혀 근거없는, 허튼소리나 백일몽의 뒤범벅일 뿐이다. 하지만 그럼에서 불구하고 《기드온의 스파이들》은 위험스러운 책이며 또한 지속적인 반향이 예상되는 책이다.

한 가지 이유로, 이런 길을 걷는 사람은 Thomas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모사드를 '폭로한 exposing' 책들 중에는 위장 스파이인 Victor Ostrovsky의 2부작 《속이기 위하여 By Way of Deception》와 《속임의 이면 The Other Side of Deception》, 그리고 Thomas 자신이 제대로 평가하듯이 그보다 '더 나은 이야기꾼은 흔치 않을 것'이라는 Ari Ben-

2)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전에도 'imefateh'라는 단어는 없다. 하지만 그는 이 단어가 '공회당'을 의미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3) 'abu', 즉 '아버지(father)'를 '목소리(voice)'로 번역한 것은 그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나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이다.



Menashe의 허튼소리 같은 저작물도 포함되어 있다. Thomas는 이 작가들 모두 모사드에 대한 '사실정보(hard information)'를 제공해 준다면 극찬하고 있으며, 앞의 것들과는 무관하긴 해도 역시 음모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Sydney Blumenthal의 연구서 《총격전 정부(Government by Gunplay)》(Blumenthal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이래 수준이 더 높아지진 않았어도 모사드 이외의 이야기에 손을 대고 있다.) 또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도서 목록에는 1959년에 초판이, 그리고 1997년에는 재판이 발간된 Anita Eagle의 《닐리 스파이(The Nili Spies)》나 Dan Raviv와 Yossi Melman이 공동저술해 1991년에 펴낸 《스파이들은 모두 왕자(Every Spy a Prince)》 등의 정작 신뢰도가 높은 저작들은 빠져 있다.

《기드온의 스파이들》은 이미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음모물 장르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이미 이야기된 것들을 상당 부분 그대로 재탕하고 있다. Thomas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무기를 판매한 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1980년의 신임 레이건 행정부가 연루된 이른바 '10월 사건(October Surprise)'(이 사건은 두 팀의 국회 심사단과 한 팀의 기자단에 의해 거짓이라고 밝혀진 유엔비어에 불과하다)과 함께 엮는다. 그리고 그는 1986년의 엘알(El Al) 여객기 폭파 미수 사건을 이스라엘 첩보국이 계획했다거나(사실 이것은 시리아측의 음모였다) '전달 같은 CIA 패거리'가 2년 후 팬암 103 여객기를 폭파했다는 등, 이런저런 근거없는 미신들을 재탕하고 있다.

내용상으로는 《기드온의 스파이들》은 본질적으로 모사드가 세계 곳곳의 권력 중심지로 축수를 내뿜는 문어라는 식의 주장을 내세우는 지금까지의 다른 저작물들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이 책은 그 주제를 한층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자가 자타가 공인하는 기자 Thomas인데다가, 영세 출판사에서 찍혔을 법한 조잡한 인쇄에 편협스럽고 난삽하며 중요심만 가득한 비난조의 문장이 아닌, 말쑥하고 잘 다듬어진 문장과 평판 높은 출판사의 돋보이는 인쇄 및 장정이 어우러진 형태 속에서 자신의 논의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모사드를 '세계의 그 어떤 단체보다도 공포스러운 비밀 첩보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긴 해도, Thomas는 다른 이들과는 달리 그 어떤 악감정도 분명하게 표명하지 않는 듯하다(그러나 그 역시 인티파다와 관련된 이스라엘의 행동을 나치가 프랑스에서 저지른 행동과 비교하는 등 이따금씩 내심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드온의 스파이들》의 그럴싸한 표면 아래에 숨어 있는 것은 음모론자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현실은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라고 설득하려는 시도이다(예를 들어 Thomas는 이스라엘 수상 Yitzhak Shamir를 워싱턴이 전세계에 행사하는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악독한 virulent 반미주의자라고 부른다). 이런 의미에서 《기드온의 스파이들》은 근래에 생겨난 모사드 관련물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음모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강요해 온, 200년의 역사를 가진 보다 광범위한 장르에 편입된다.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종류의 글은 그냥 웃어넘기면 그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결코 간단히 넘겨 버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글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는커녕 유죄라고 판단된 쪽에 대한 보복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부르주아를 겨냥한 공산주의 문학은 스탈린, 마오쩌둥, 폴 포트 등에 의해 저질러진 야만적인 테러의 기초로 작용했고, 사담 후세인 정권에 의한 반쿠르드(anti-Kurd) 세력의 분출은 북이라크 대량학살의 기반이 되었다. 또한 19세기 말에 전성기를 누리며 《유대 원로 의정서(Protocols of the Elders of Zion)》에 와서는 마침내 정점을 이룬 유대인 음모론 관련 글들도 결국은 나치 정권에 의한 유대인 핍박의 초석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종류의 음모론 책자들을 완전히 신빙성 없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을지라도, 어쨌거나 가면을 벗기고 비난해야 옳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이다.

- Daniel Pipes / 중동 포럼(Middle East Forum) 이사.  
《The Hidden Hand: Middle East Fears of Conspiracy》, 《Conspiracy: How the Paranoid Style Flourishes, and Where It Comes From》의 저자.
- 강유구(전문번역가) 번역
- Reprinted from COMMENTARY, June 1999,  
by permission; all right reserved.